

# 다시 흙으로부터 배운다

교육의향



노영필  
교육평론가

평생 배움을 멈출 수 없다. 우연한 기회로 농작업실습연수에 참가해 뜻밖에 쓸쓸한 즐거움을 얻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연수여서일까 사뭇 생기가 돈다.

농사짓기는 흙이 만든 스토리텔링이다. 흙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신비롭다. 씨앗은 흙 속에 자리를 잡으면 수백 배의 힘을 이겨내고 싹을 틔운다. 물론 수분이 늘러오고 햇살이 친구가 되어줄 때 새 집살이를 시작한다.

흙은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다. 인간이 죽으면 누울 자리를 만들어주고 동식물에게 살아갈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흙은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안아준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다. 흙이 위대한 이유다.

연수시간 내내 지인이 좋은 흙을 얻어 가겠다고 농장을 찾아왔던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흙을 퍼 담던 지인은 자잘한 돌들이 섞여나오니 땅이 나쁘다고 실망해 했다. 어떤 흙이 좋다고 생각했던 걸까? 지인의 흙 이해가 궁금해졌다.

좋은 흙, 나쁜 흙이 어디 있는가? 사람

이 만든 기준일 뿐, 흙 속에는 못 생명의 애환이 스며있고 만인의 사연을 품고 있는 지구의 역사 그 자체 아닌가.

흙은 동물의 숨결이 되고 식물의 향기가 되어 지금껏 지구를 아름답게 지켜왔다. 흙은 한 번도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 공생의 미덕으로 차별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 생명의 품이 되어주었다.

흙은 늘 배움을 주는 보물 창고다. 흙은 인류가 살아가면서 빼놓지 않고 모셔야 할 소중한 존재다. 한줌 흙 안에 우주 생명이 머무르고 있으니 농사일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흙이 품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읽지 못하면 농사일을 성공할 수 없다. 흙의 친구는 물, 바람, 햇빛, 기온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식물들마다 갖는 생리, 병충해, 영양, 기후 환경의 이해가 연결되어야 안심이다. 나의 선부름은 16년 복잡하게 자란 중학생 아이들을 1년 맡은 담임이 자칫 엉뚱한 선입견으로 대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

연수에 참가하면서 흙을 둘러싼 새로운 이해의 계기가 되어 다행이다. 좋은 흙이 무엇인지,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그릇된 오해를 바로 잡은 정보를 얻었다. 가장 큰 오해는 농사짓는 일을 '힘쓰는 일' 쯤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연장이 일을 한다'고 말한다. 농사일

도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등 대부분 기계가 일한다. 조작법만 알면 힘들어지지 않고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까지 등장한 스마트농업까지 연결 보면 힘이 아니라 머리로 농사를 짓는 세상이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여겨 너머로 배웠던 주먹구구식의 농사짓기를 되짚어 정리할 기회가 필요했다. 이번 연수가 안성맞춤의 시간이 된 것이다. 그 소박한 동기가 흙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아는 척했던 농사일은 또 다른 부끄러움이었다.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는 말이 얼마나 나쁜 표현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앞으로는 '농사나 짓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무 배려도 담지 못한 채 농부에게 모욕 주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흙이 악동들의 신발에 묻어 집으로 들어올 때 천덕꾸러기로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흙의 건강은 사람이 좌우할 뿐 흙은 그대로 거기에 건강한 숨결로 머물러 게실 따름이다.

흙은 지구생명의 포대다. 흙의 가르침으로 흙을 새롭게 모실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흙을 보면 감사하고 경의를 표현할 것이다. 흙의 생명성에 다시금 눈뜨게 해준 흙에 감사하다.

## 社說

### 임금체불 구속수사, 노동개혁 시작이다

#### 정부 오늘부터 사법절차 강화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한층 강화된 사법처리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다. 임금체불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든든하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나서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에 비해 40.3%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임금체불액도 올해 경신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7만 5432명으로 2022년 23만 7501명에 비해 4만여 명 증가했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마저 떼인 노동자가 한 해 30여 만명에 이른다니 안타깝다. 장기간 고정수입이 끊긴 노동자의 팍팍한 삶도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민생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는 노동자가 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하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권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체불은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정마저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 학대피해 장애아동 심터조차 없는 광주

#### 섬세한 관리·치료시설 절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제44주년을 맞았지만 광주지역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최근 학대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원가정과 분리, 보호할 시설조차 없다고 한다.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아동의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학대 신고건수는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1038건, 2022년 798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장애아동 수는 따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 학대 증가에도 피해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전용심터가 광주에는 전무하다. 대부분 장애아동은 가정내 폭력이 많은 만큼, 원가정과 신속한 분리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전용 심터가 절실하다.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아동 전용 심터 마련 근거가 제시됐음에도 전국에서 서울·경기·울산·인천·부산에만 개설했을 뿐이다. 광주의 경우 연령, 장애 유무 구분없이 장애·아동 보호기관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문 장애아동 시설이 없다 보니 일반 보호시설로 보내진 장애아들의 부적응 등이 우려된다. 이 같은 공동생활 속에서는 장애아들이 섬세한 관리와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어리거나 장애 아일수록 더 예민한 데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피해 장애아동들을 각자 독립되고 안정된 공간에서 돌보아 치료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광주는 누구나 어디서나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선포했다. 정작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시 갈곳이 없어 돌봄 누수가 생겼다. 지금이라도 당장 광주시는 학대 장애아를 위한 돌봄심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나눠 '맞춤형' 보호·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0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미프로야구(MLB) 애리조나 다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 6회 말 2루 앞 땅볼을 치고 있다. 이정후는 5타수 2안타(1홈런)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7-3 승리에 기여했다. AP/뉴시스

#### 서석대

약 50억년 전, 태양계 중심부에서는 수소와 헬륨 가스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우리의 낮을 밝혀주는 '태양'이 생겨났다. 태양 주변에서는 먼지와 가스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원시 태양계 원반'을 형성했으며, 원반 안에서 다시 뭉쳐진 먼지와 가스 입자들은 작은 천체가 되어 태양계 곳곳에 자리했다.

뜨거운 마그마로 뒤덮여 있던 한 천체에서는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금속들이 중심부로 모여 핵을 구성했고, 규소나 알루미늄 같은 가벼운 물질들이 표면을 형성했다. 마그마로 인한 내부 압력 변화로 10억년이 넘는 시간 동안 뜨거워졌다.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천체의 겉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

태양보다 23도 기울어진 뾰족한 각도로 공전하던 이 천체에는 충돌 혹은 분열로 생성된 위성까지 맴돌기 시작했다. 위성이 주는 압력으로 표면의 판이 깨지고 이동하면서 대륙이 생겨났고, 계절의 변화도 만들어졌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 지구의 탄생이다.

생명이 살기에 금성은 너무 뜨거웠고, 화성은 너무 추웠다. 물과 대륙, 계절이 존재하는 지구에는 곧 단순한 생물체들이 형성됐다. 이 생물들은 지구의 지표와 대기를 변화시켰으며,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의 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생물이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구의 기후와 환경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 온갖 필연과 우연이 반복되면서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 된 지구에는 약 200만년 전 인간이 등장해 태초의 생물들처럼



지구 생태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포식자와 계절의 변화 등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인간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자 '화학적' 행동을 시작했다. 화학연료의 개발과 사용, 그리고 산업화는 수십억년 동안 변화해 온 지구를 불과 300년 만에 바꿔놓았다. 이제 지구는 마그마가 아닌 온실가스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탄생한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4월22일을 지구의 생일, 지구의 날로 정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00여개의 나라와 5만여개의 단체가 이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

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10분 소등'은 지구의 날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대표적인 캠페인이다. 10분 간의 소등으로 국내에서만 약 5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불을 끈 순간에는 한 치 앞에도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지면 인간의 눈은 희미해도 형체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시력을 되찾는다. 그렇게 창문을 찾아 커튼을 열어젖히면 달빛에 비친 세상의 모습,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볼 수 있다.

탄생 이후 오늘날까지, 어쩌면 지구에는 지금이 불을 끈 시간인지 모른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지, 잠시 숨을 고르고 커튼을 열어젖혀 환한 달빛을 만끽할지는 우리에게 달렸을 따름이다.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